

(미래정책연구실, 2010.02.08)

미국 농업부문 보조금 삭감 계획

※ Wall Street Journal (2010.02.01) 주요 내용

- 2.1일 발표된 2011년도 예산 제안에 따르면, 오바마 행정부는 농업 보조금에 새로운 상한선을 설정하고 작물보험 회사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함으로써 수십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이고자 함.
-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농가들은 계속해서 보조 혜택을 받게 되겠지만, 소위 ‘부농층’은 USDA의 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임.
 - 현재, 농외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이거나 농업소득이 75만 달러 이상인 농가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, 이러한 기준을 향후 3년에 걸쳐 각각 25만 달러까지 낮추고자 함.
- 농가당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상한선을 25%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, 그렇게 되면 농가당 보조금 수취액은 연간 3만 달러 이내로 제한됨(현행, 4만 달러 이내).
- 예산 담당자는 이와 같은 보조금 감축이 시행될 경우, 정부 직불금이 향후 10년간 25억 달러 감소하게 된다고 밝힘.
- 또한, 미국 정부는 작물보험회사들에 대한 보조방식을 정비함으로써 2011년에 더 많은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.
 - USDA는 지난 12월 연방작물보험프로그램(Federal Crop Insurance Program) 초안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음.
- 작물보험 회사들은 ‘표준재계약협정(Standard Reinsurance Agreement)’라 명명된 정부와의 계약 구조 및 조건에 따라 현재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는 상황임.
 - 최근 USDA는 작물보험회사의 합리적인 수익률이 12.8%라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(현재, 실제 평균 수익률은 16.8%).

- USDA 통계에 따르면, 작물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 지출액은 2006년 18억 달러에서 2009년 38억 달러로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.
- 본 예산 제안서에 따르면 작물보험 정책의 수정을 통해 향후 10년간 8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